NH투자증권

NH Morning Meeting Brief

주식전략/경제

매크로분석	명목 GDP 전망 높인 FOMC	안기태/나정환

채권전략

채권(전략)/9월 FOMC	단기 가속, 중기 속도 조절	강승원
해외채권/Monetary Policy Comment	인도네시아(BBB): 분명해진 정부와의 공조 기조	엄서진

산업/기업분석

증권산업 (Positive유지)	유동성 장세에서는 증권주를 담으세요	윤유동
건설 (Positive유지)	숨 고른 뒤 달리기	이은상

NH Morning Meeting Brief는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H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전략/경제

매크로분석

안기태/나정환 (02-768-7205, 7783)

명목 GDP 전망 높인 FOMC

원문보기

- **(매크로/안기태) 명목 GDP 전망 높인 FOMC**

포인트1) 고용 시장 해석

① 2026년 4분기 GDP 성장률과 PCE 물가 상승률의 합계 전망을 상향 조정(6월 4.0%→ 9월 4.4%). 실업률 하향 조정

② 고용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했다고 언급했는데, 당장은 고용시장 수요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도 최근 취업자 증가 폭 하락에는 공급 감소 영향이 좀더 크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 순이민 유입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율 하락이 취업자 증가 폭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와 부합

포인트2) 불확실성 언급했지만 인플레이션 심각하진 않을 것

① 관세 인상에 따른 재화가격 상승 불확실성 언급

② 소매업체들이 관세 인상 이전에 확보한 기존 재고를 팔고 있는 가운데 향후 Re-Stocking에 나서면 가격 전가가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수입 재화가 PCE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

③ FOMC 전망에 제시된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에서 통제 가능

포인트3) 연준 기준금리 궤적과 영향

① 연준 기준금리는 2025년말 3.75%, 2026년 상반기 3.25%(최종 수준) 인하 예상

② 고용과 주택 지표가 정체된 상태이므로 기준금리 인하 필요하며 작년 사례를 볼 때, 향후 해당 부분에 개선 효과 있을 것

③ 반면, 금융상황지수는 3년래 최저(완화적) 수준인데(주가 상승, 회사채 안정, 주택가격 상승) 이런 분야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주택시장과 비교하면 적음

④ 기준금리 인하가 부문간 양극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음

- **(시장전략/나정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

① 9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25bp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후, 주식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함. 점도표 발표 직후 장중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기에 추가적인 주가 변동성은 제한적

② 9월 점도표는 시장 기대보다는 다소 비둘기파적이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식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 FOMC 직전 FedWatch는 올해 3회, 내년 3회의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으나, 9월 점도표는 올해 추가 2회, 내년 1회의 인하를 시사. 2027년 연말 기준금리 중간값은 3.1%로, 중립금리로의 점진적인 복귀 경로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FOMC 이후에도 FedWatch는 여전히 올해 추가 2회, 내년 3회의 인하를 반영 중

③ 한국 주식 시장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된다는 점에서 유동성 유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이 지속. 연초 이후 31%대로 하락한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최근 33%대까지 회복. 외국인 지분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5%~39% 대비 여전히 낮음.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국내 정책 모멘텀이 더해질 경우, 국내 주식 시장은 내년까지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채권전략

채권(전략)/9월 FOMC

강승원 (02-2229-6421)

단기 가속, 중기 속도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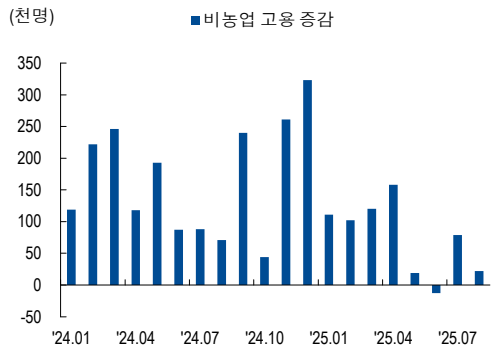
원문보기

금번 금리인하는 위험 관리용 금리인하. 연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인하가 단행되겠지만 '26년 상반기에는 분기당 1회로 속도 조절 전망. 단기 금리는 당분간 상방 압력에 노출되겠지만 장기구간은 단기 반등 후 재차 하락 반전 전망

- **통화정책 결정: 기준금리 25bp 인하 (4.25%)**
  - 9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4.25%). 금번 회의에서 처음 이사로 참여한 스티븐 미런은 50bp 인하 소수의견 개진. 소수의견은 스티븐 미런이 유일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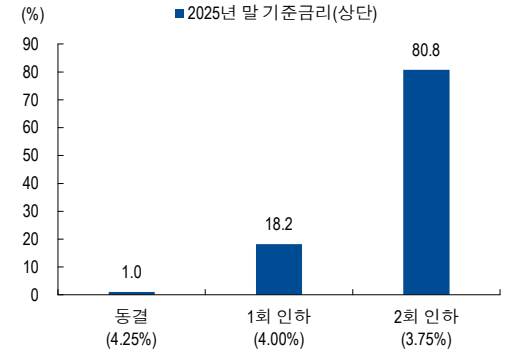
- **단기 가속, 중기 속도 조절: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
  - 금번 FOMC의 핵심 메시지는 전술적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인하 속도를 가속화하되 큰 틀에서는 Terminal rate 도달 시점에 여유를 가지겠다는 것. 점도표에서는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매 회의' 금리인하를 제시하는 동시에 '26년에는 추가 한 차례 인하만을 제시. 이에 더해 SEP에서는 '25년, '26년, '27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하고 '26년, '27년 실업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 즉, '26년에는 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을 제시
  -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반복. 파월은 금번 금리인하의 성격을 '위험 관리용 금리인하'로 규정. 당사는 이를 최근 높아진 노동 시장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한 후 다시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판단
  - 연준의 전술 변화를 감안해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를 변경. 기존 시나리오는 올해 두 차례(9월 포함), '26년 세 차례 인하를 전망. 변경된 시나리오는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인하를 단행하고(연말 3.75%), 내년 상반기 중 분기당 1회(3월, 6월) 속도로 추가 인하('26년 말 3.25%) 전망. '26년 하반기 연준 리더십 교체 이후에는 금리 정책보다 유동성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질 전망
  - 9월 FOMC 전 시장은 '26년 중 Terminal rate 도달 혹은 Terminal rate를 하회하는 기준금리를 기대. 그러나 금번 회의에서 중기적인 차원에서 인하의 속도 조절이 제시된 만큼 단기금리는 당분간 상방 압력에 노출될 것
  - 장기금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과잉 완화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점에서 단기 반등 후 재차 하락 반전 전망. 금번 회의에서 파월은 고용시장의 BEP를 월 평균 5만명 수준으로 평가. 문제는 QCEW 조정을 감안하면 이미 5월 이후 비농업 신규 고용이 역성장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를 감안하면 4분기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연준의 실업률 전망이 낙관적일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게 될 것. 커브 플래트닝 전망
  - 특히, 금번 회의에서 월러, 보우먼 이사가 25bp 인하에 찬성한 점도 중요. 이는 연준의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에 대한 내부 컨센서스가 있다는 방증으로 판단. 이는 장기, 초장기 구간의 텀 프리미엄을 낮추는 재료로서 기능할 것. 이 역시 커브 플래트닝 압력으로 작용 전망

미국 비농업 고용은 낮아진 BEP(0~50K)에도 크게 못미치는 상황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선물시장의 연말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 분포



자료: CME Fedwatch,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해외채권/Monetary Policy Comment

엄서진 (02-768-7021)

인도네시아(BBB): 분명해진 정부와의 공조 기조

원문보기

중앙은행은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해 4.75%로 설정. 반정부 시위, 스리 뮬랴니 재무부 장관 해임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중앙은행의 정부 공조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더 완화적 기조가 전망됨

- **중앙은행, 기준금리 25bp 인하**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9월 기준금리를 4.75%로 인하. 반정부 시위, 스리 뮬랴니 재무부 장관 해임 등의 혼란에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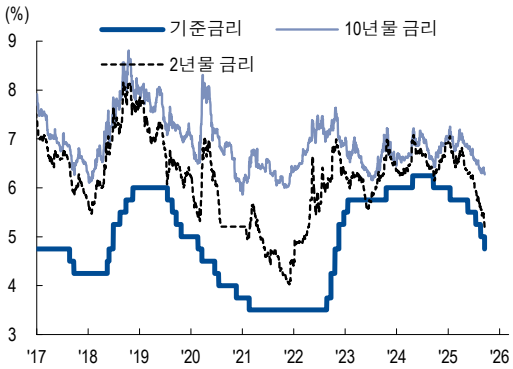
- **일단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
  - 지표상으로 여전히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지난 회의에서는 물가도 반등이 기대됐으나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고, 소매판매도 여전히 낮은 수준. 특히,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신용 성장률은 간신히 반등했으나 레벨 자체는 낮은 상황
  - 특히, 반정부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의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최근의 혼란으로 환율 변동성이 다소 높아진 상황임에도 3개월 연속 인하를 단행

- **분명해진 정부와의 공조 기조,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전망**
  - 신임 재무장관이 곧바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확장 재정으로 전환되었으나 금리 상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나눠 가지는 Burden Sharing을 선언하면서 정부에 이자 지급, 2차 시장에서의 정부채 매입을 약속한 상태. 중앙은행의 재정 지원과 정부채에 대한 중앙은행의 추가 수요를 통해 금리 상방 압력은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
  - Burden Sharing에 더해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정부 공조 기조가 강화. 이번 회의 성명서에서도 '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과의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따라서 기존의 예상보다 더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해 최근 국회는 중앙은행의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며 대통령에게 이사회 해임 권한 부여까지 언급. 아직까지 논의 단계인 만큼 크지는 않지만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불스티프닝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환율은 약세 전망

격해지는 반정부 시위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인도네시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산업/기업분석

증권산업 (Positive유지)

윤유동 (02-768-7563)

유동성 장세에서는 증권주를 담으세요

원문보기

코스피 지수가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외국인 수급 확대, 정부의 벤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추가 지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베타가 높은 증권주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동시에 주주환원 고도화, 신사업 추진 등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최선호주, 한국금융지주를 차선호주로 추천한다. 각각 Target PBR 1.6배, 1.4배, 1.3배이다.

증권산업 투자의견/투자지표 (단위: 원, 배, %)

종목명	코드	투자의견	목표주가 (12M)	현재가	PER		PBR		ROE		배당수익률	
					2025E	2026F	2025E	2026F	2025E	2026F	2025E	2026F
키움증권	039490.KS	Buy(유지)	380,000(상향)	265,500	6.5	6.1	1.1	0.9	17.8	16.4	3.8	4.9
미래에셋증권	006800.KS	Buy(유지)	32,000(상향)	22,000	10.9	9.1	1.0	0.9	9.4	10.2	1.4	1.4
한국금융지주	071050.KS	Buy(유지)	230,000(상향)	154,400	5.3	5.1	0.8	0.7	16.5	14.8	4.3	4.5
삼성증권	016360.KS	Buy(유지)	110,000(상향)	74,500	6.9	6.8	0.8	0.8	12.6	11.8	5.4	6.0
대신증권	003540.KS	Buy(유지)	37,000(유지)	28,000	8.3	12.9	0.6	0.6	7.0	4.2	4.3	4.3

주: 9월 17일 종가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건설 (Positive유지)

이은상 (02-2229-6841)

숨 고른 뒤 달리기

원문보기

금리 인하, PF·미분양 해소에 따른 건설 내수 경기 회복이라는 방향성은 유효하며 최근 저평가 매력 부각 중. 단기적으로는 수주·분양 공백의 최소화, 중장기적으로는 신사업 동력이 핵심.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추천

- **방향성은 여전, 저평가 매력 부각**
  -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Positive 유지. 금리 인하, 부실 PF·지방 미분양 등 자금 경색 해소에 따른 건설 내수 경기 회복의 방향성은 유효. 다만 회복 속도에 대한 눈높이가 낮춰지며 최근 주가는 조정을 받음. 업종 평균 PBR은 0.4배 수준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매력 충분. 커버리지 기업의 실적 개선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본업의 공백 최소화, 신사업의 동력**
  - 종목 선별 기준은 1)'25년 수주 및 분양 실적과 2)주택 의존도를 낮춰줄 신사업 보유 여부. 건설업종 내 최선호주 현대건설, 차선호주 GS건설 제시
  - 단기적(6M~12M)으로는 '25년 신규 수주 및 주택 분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이는 내년 외형과 수익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 주택 공정 촉진에 따른 '22년 이전 착공한 고원가 현장들의 매출 비중 축소가 필요. 상반기 누계 실적 기준 GS건설의 수주 및 분양 성과가 가장 양호
  - 중장기적(12M~)으로는 주택 매출 의존도를 낮춰줄 신사업 보유 여부가 중요. PF 사업의 구조적 변화, 주택 수요의 지역별 양극화 등으로 인해 주택 사업에서 과거 수준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원전 사업으로 대표되는 현대건설이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유망하며 올해 관련 신규 수주가 예상됨. GS건설의 데이터센터, 해외 도시개발사업 역시 주목할 필요 있음

건설업종 투자의견/투자지표 (단위: 원, 배, %, 십억원)

종목명	코드	투자의견	목표주가 (12M)	현재가	PER		PBR		ROE		순차입금	
					2025E	2026F	2025E	2026F	2025E	2026F	2025E	2026F
현대건설	000720.KS	Buy(유지)	97,000(유지)	61,500	12.7	10.3	0.8	0.8	6.5	7.6	-3,482	-4,372
GS건설	006360.KS	Buy(유지)	30,000(상향)	19,570	9.2	5.1	0.4	0.3	4.0	7.0	2,243	1,783
DL이앤씨	375500.KS	Buy(유지)	61,000(하향)	44,150	5.5	4.5	0.4	0.3	6.2	7.2	-1,330	-1,637
HDC현대산업개발	294870.KS	Buy(유지)	27,000(하향)	21,200	5.7	3.9	0.4	0.4	7.7	10.4	890.9	850.5
삼성E&A	028050.KS	Buy(유지)	37,000(상향)	28,250	7.2	6.2	1.1	1.0	17.0	16.9	-3,567	-4,386
대우건설	047040.KS	Hold(유지)	4,200(하향)	3,760	6.8	4.7	0.3	0.3	5.2	7.0	451.1	259.7

주: 9월 16일 종가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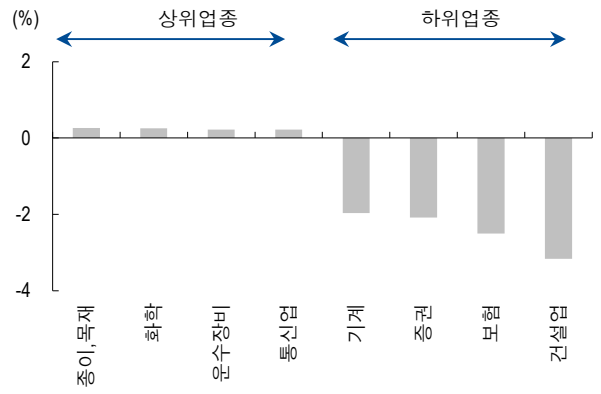
- 당사는 '현대건설, 삼성E&A'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GS건설'의 기업설명회에 동사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Domestic Market

Trading Summary		Index					Performance/Spread			
		17-Sep	16-Sep	15-Sep	12-Sep	11-Sep	1Day	1Week	1Month	1Year
거	주가지수(P,%)	3,413.40	3,449.62	3,407.31	3,395.54	3,344.20	-1.05	2.98	5.82	32.54
래	거래량(백만주)	327	406	379	449	436	-80	-106	-4	-132
소	거래대금(십억원)	11,612	14,059	12,793	13,932	14,947	-2,447	-2,002	1,096	984
코	주가지수(P,%)	845.53	851.84	852.69	847.08	834.76	-0.74	1.50	3.71	15.32
스	거래량(백만주)	1,004	1,036	945	954	960	-31	41	68	103
닥	거래대금(십억원)	6,999	7,789	8,082	8,289	7,912	-790	-915	969	419
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										
거	외국인(십억원)	-35	1,793	267	1,435	300	-35	3,760	4,529	-15,616
래	국내기관(십억원)	-308	108	-138	612	823	-308	1,098	3,199	16,464
소	개인(십억원)	252	-1,764	-137	-2,029	-1,149	252	-4,827	-9,306	-15,300
코	외국인(십억원)	-163	-214	-64	188	-66	-163	-318	67	-1,014
스	국내기관(십억원)	-113	-45	-41	97	30	-113	-73	-174	-823
닥	개인(십억원)	285	272	149	-269	53	285	489	435	4,479
Market Indicators										
	3년만기 국고채(%,%P)	2.42	2.42	2.44	2.43	2.42	0.00	-0.01	0.01	-0.40
	3년만기 회사채(AA-)(%,%P)	2.88	2.89	2.91	2.90	2.89	0.00	-0.02	-0.02	-0.53
	콜금리(%,%P)	2.51	2.51	2.53	2.52	2.52	0.01	0.02	0.00	-1.03
	시가총액(조원)	3,247	3,280	3,245	3,232	3,183	-33.15	88.21	173.69	788.55
	원/달러 환율(원,%)	1,380.10	1,378.90	1,389.00	1,388.20	1,391.80	0.09	-0.47	-0.14	3.81
	원/100엔 환율(원,%)	943.77	942.70	940.15	943.79	941.70	0.11	0.30	0.40	-0.21
증시주변자금										
	고객예탁금(십억원)	-	74,928	74,764	72,887	71,012	-	4,337	5,531	23,527
	미수금(십억원)	-	897	896	890	883	-	22	-104	-38
	신용잔고(십억원)	-	22,349	22,323	22,234	22,271	-	128	314	5,427
	순수주식형수익증권(십억원)	-	164,424	163,687	163,203	162,097	-	3,184	6,758	48,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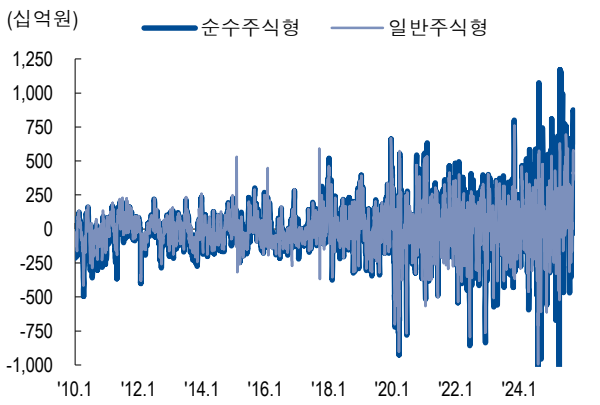
주: 투자자별순매수의 Performance/Spread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순매수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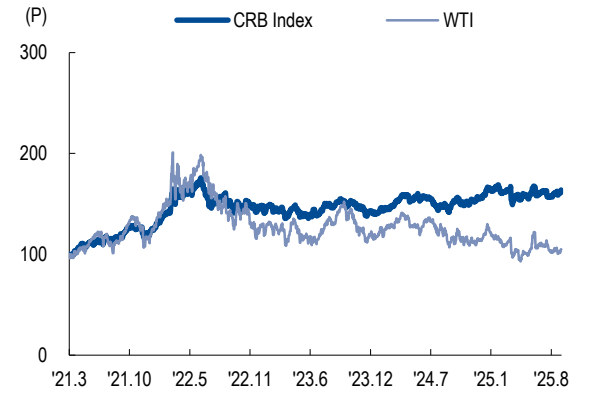
Global Market

		Index					Performance/Spread			
해외주요증시		17-Sep	16-Sep	15-Sep	12-Sep	11-Sep	1Day	1Week	1Month	1Year
미국	NASDAQ(P,%)	22,261	22,334	22,349	22,141	22,043	-0.39	2.12	2.95	25.88
	S&P500(P,%)	6,600	6,607	6,615	6,584	6,587	-0.23	1.62	2.33	17.32
	Dow Jones(P,%)	46,018	45,758	45,883	45,834	46,108	0.29	1.11	2.39	11.17
유럽	영국(P,%)	9,208	9,196	9,277	9,283	9,298	-0.74	-0.14	0.76	11.31
	독일(P,%)	23,359	23,329	23,749	23,698	23,704	-1.64	-1.88	-4.11	24.92
아시아	일본(P,%)	44,790	44,902	44,768	44,768	44,373	0.05	2.63	3.26	22.44
	대만(P,%)	25,438	25,630	25,357	25,475	25,216	0.32	3.63	4.54	16.91
	중국(P,%)	9,597	9,386	9,385	9,365	9,260	2.26	5.21	6.17	58.06
	인도(P,%)	82,694	82,381	81,786	81,905	81,549	1.11	2.36	2.60	-0.24
라틴	멕시코(P,%)	61,596	62,102	62,102	61,799	61,554	-0.81	1.56	5.62	18.42
	브라질(P,%)	145,594	144,062	143,547	142,272	143,151	1.43	2.68	6.79	7.94
국제금리 및 환율										
금리	미국채 10년(%,%P)	4.09	4.03	4.04	4.06	4.02	0.05	0.05	-0.23	0.44
	스프레드(10년-2년) (%,%P)	0.53	0.52	0.50	0.51	0.48	0.03	-0.02	-0.03	0.47
환율	엔/달러(엔,%)	146.99	146.48	147.40	147.68	147.21	-0.28	-0.35	-0.14	4.36
	달러/유로(달러,%)	1.18	1.19	1.18	1.17	1.17	0.44	0.43	0.94	6.66
국제 원자재 가격										
	CRB Index(P,%)	304	307	305	302	300	-0.61	1.40	2.73	10.87
	WTI ($/Barrel,%)	65	65	63	63	62	1.93	3.63	2.74	-6.02
	Gold ($/Troy Ounce,%)	3,660	3,690	3,679	3,643	3,634	-0.52	0.66	9.70	41.98
	구리($/Metric ton,%)	10,117	10,117	10,189	10,065	10,057	-0.71	2.12	3.66	9.29

	1Week (%,%P)			1Month (%,%P)			PER (배)	
Global Company Performance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Intel/삼성전자	1.72	11.55	-9.84	1.38	9.22	-7.83	-	14.83
Micron Technology/SK하이닉스	21.70	20.40	1.31	32.37	20.61	11.75	215.10	10.68
Philips/LG전자	0.13	3.59	-3.46	1.24	0.91	0.33	-	37.28
NTT Docomo/SK텔레콤	0.00	2.40	-2.40	0.00	-1.25	1.25	13.52	9.50
Google/NAVER	6.70	2.41	4.29	21.93	4.01	17.92	29.57	18.34
Toyota/현대차	-0.66	-1.14	0.49	3.38	-0.69	4.07	8.03	4.68
Nippon Steel/POSCO	-5.49	1.43	-6.92	7.96	-7.80	15.77	9.42	19.48
Exxon Mobil/SK이노베이션	4.95	0.00	4.95	8.26	0.00	8.26	14.30	-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0.91	0.85	-1.76	-1.06	-4.62	3.56	7.31	6.66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0.64	-2.00	1.36	-5.29	9.91	-15.20	52.19	2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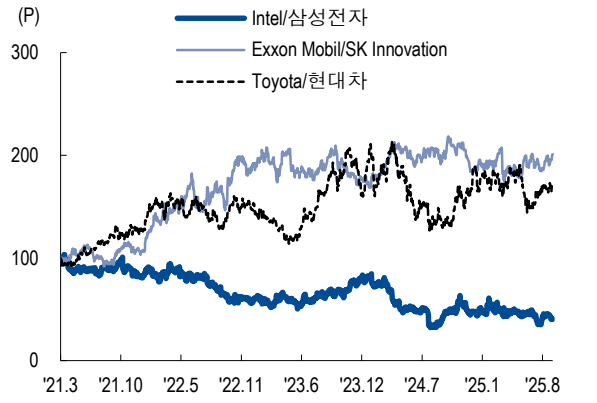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Buy(15%초과), Hold(-15%~15%), Sell(-15%미만)로 구분

- 본 조사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